

## 현대 중국농민의 일상세계:

### 공간구조와 관시(關係)의 확장\*

김광역\*\*

#### 1. 머리말

1990년대 이래 중국에 대한 사회과학계의 연구 주제의 하나는 호구(戶口)제도와 단위(單位)체제의 해체 및 유동인구(流動人口)의 증가 확대가 경제, 사회, 정치의 영역에 가지고 올 변화의 가능성을 시민사회의 형성의 잠재력의 개발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이었다(정중호 2000; Lu and Perry 1977; Solinger 1999; Xiang 2005; Zhang 2001). 이러한 논의의 근저에는 개인이 소속되는 단위의 변화가 국가체제 하에서 일상생활의 양식과 영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관한 관심이 깔려있다(김광역 1993, 2000; Yan 2003).

그러므로 국가-사회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사회부문에 대한 침투(Shue 1988)에 대하여 저항(resistance)이 개혁개방 이래

---

\* 이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2006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과제(A00119)로 수행되었다.

\*\* 서울대학교 인류학 교수

일어나는 갈등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적 단어로 등장하였다(이론적인 배경으로서 Scott 1990 참조; 중국에 대한 연구로서 Perry and Selden eds. 2000, 2003 등 참조). 특히 동구에서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서구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은 시민사회, 거버넌스, 그리고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었으며 국가권력의 약화를 논하게 만들었다(Marcus ed. 1993 참조). 한편에서는 비록 이전의 국가독점주의가 더 이상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될 수는 없지만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및 신자유주의의 결합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됨을 지적한다(Evans, Rueschemeyer, Skocpol eds. 1985).

그러나 중국과 같이 오랜 국가의 역사를 가진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뚜렷이 구분되고 그 대결도 분명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탈 사회주의 맥락에서 공식적 역사와 비공식적 기억 사이의 경쟁(Watson ed. 1994)이나 국가권력과 풀뿌리 민주세력 사이의 긴장관계가 주목되지만 국가 권력과 사회전통은 경쟁과 갈등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다양한 양식의 공모(共謀)를 이루며 중국사회의 전통적인 역동성의 바탕이 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김광역 2002).

그런데 현대 중국에 대한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도시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는 가장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와 시민이 역동적으로 조우하는 공간으로서 체제의 변화가 정치 및 사회의 변화와 연관되는 점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구는 도시 노동자, 농민공, 그리고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공권력과 시장경제의 힘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라는 이론적 공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결국 연구자들이 농촌과 농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부족함을 의미한다. 비록 급격한 도시발전의 진행과정이 많은 국가차원의 문제점을 야기하며 다양한 전망을 유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농업국가로서의 기초를 유지할 것임은 분명하다. 농업의 정치경제학적 중요성과 정치사회적 세력으로서의 농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산업화와 도시

화의 거대한 흐름 밑에 깔려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이 글은 농촌과 농민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중국의 변화를 관찰하려 한다. 특히 실천의 주체로서 농민들이 자신이 속한 향촌사회의 공간적 구성과 일상세계의 구조로부터 어떤 인식체계를 만들어내는가를 논하는 것이다. 특히 장소(place)에 대한 관심의 개발이 요구되는데(Low and Lawrence-Zuniga eds. 2003), 세대에 따른 다양한 기억의 층(layers of memories)은 ‘현대’ 국가의 다양한 공간들에 스며있는 권력들을 실천하는 다양한 미시적 기술(micro-techniques)을 매개한다(Gupta and Ferguson eds. 1997). 경관(landscape)은 단순히 자연적인 풍경이 아니라 문화적 경관(culture-scape)이며 권력의 경관(power-scape)인 것이다. 사람들은 눈 앞에 전개되는 자신의 일상세계의 구성과 구조의 변화를 기억으로 각인하며, 그 기억으로부터 현재에 대한 의미와 정당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기억은 정치적으로 구성되고 재생산된다. 경관의 주도권은 곧 권력과 기억에 대한 주도권이며 따라서 그것은 상품으로서의 공간이나 장소의 소유권 보다 훨씬 중요하다.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라도 그것은 맥락에 따라서는 사회적 기억 혹은 집단적 기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규정한 발전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에 대한 저항은 단순한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역사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국가와 민중이 혹은 사회가 벌이는 경쟁이자 타협의 과정인 것이다(이 점에 대하여 Connerton 1989; Fentress and Wickham 1992).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산동성 중부의 지방사회에서 개혁개방 이래 30년간 진행된 사회구조의 변화를 동잉촌이라는 촌락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일상생활 세계의 구성과 그 공간의 확장을 살피고, 그러한 변화로부터 농민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논의한다.<sup>1)</sup>

---

1) 1990년대의 동잉촌에 대한 종합적인 정황에 대해서 김광익(2000) 참조. 조사지의 행정상 위치는 산동성 쑤보시 환타이현 싱지아향 동잉촌이다.

## 2. 마을경관의 변화

지난 30여 년의 개혁개방 정책이 가지고 온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일상생활의 사회적 공간구조의 변화라고 할 것이다. 동잉촌은 ‘주택구획사업’(住宅規劃事業)에 의하여 이전의 흙벽과 띠를 입힌 지붕을 한 농기들이 벽돌과 시멘트로 만든 벽에 슬라브 지붕을 한 신식 가옥으로 대체되었고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건조한 계절에는 먼지가 일던 좁고 구불구불하던 길이 크고 곧은 길로 바뀌고 시멘트로 포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금방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나 촌락에 들어서는 순간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을 내뱉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의 변화는 그 정도와 형세에 있어서 농촌을 훨씬 능가한다. 사실 80년대만 하더라도 산동성에서 지방의 도시와 농촌은 생활조건이나 외형에서 큰 차별이 없었다. 농촌 공업화와 향진기업의 구호로 진행된 덩샤오핑 정부의 경제정책은 도농의 외형적 격차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뒤이은 장쩌민 정부의 도시건설 정책은 도시와 농촌의 현격한 차이를 낳게 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환타이현의 수오진도 현대도시의 건설 정책에 맞추어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와 넓은 길과 대형 건물과 백화점 등으로 면모를 일신하였다. 동잉촌의 소학교는 싱지아향의 여러 소규모 학교와 함께 승지아촌의 학교로 통합되었고 초급중학교는 싱지아진의 향연립중학교로 통합되었다. 촌의 보건진료소는 ‘맨발의 의사’(赤脚醫生)가 담당하는 일차적인 진료소로서 싱지아향의 대규모 현대적 병원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외형적인 격차는 도농(都農) 혹은 공농(工農) 격차라고 말해지는 산업구조와 경제구조의 격차와 함께 오늘날 국가 차원의 사회적 통합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공간구조상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도시의 일상생활 세계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물리적 공간구조의 격차와 동시에 일상생활의 실천 공간의 경계는 오히려 모호해지거나 그 경계의 중요한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전의 호구제도와 단위제도가 거의 무의미하게 된 현 단계에서 사람들은 행정적 경계를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공간을 유동적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촌락과 도시의 경관은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동시에 농민은 그러한 도시의 공간 속으로 자신의 일상세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이중성이 자리잡게 되었다.

2006년 12월 현재 촌정부에 등록된 가구 수는 561호인데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집이 35호가 된다. 이는 분배받은 농지의 일부에 새 집을 짓거나, 촌판기업이 해체되면서 그 땅을 불하받아 새집을 짓거나,<sup>2)</sup> 인근의 소도시에 건설된 새로운 주거지에 집을 사서 나간 가족의 집안바, 이전의 집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지 않은 채 자물쇠로 채워 놓았다.

등록된 인구는 모두 2,315명이며 그 중에서 380여 명이 장기간 외지에 거주한다. 이들 장기 외지거주자를 분석하면 환타이현 내에 40여 명이 그리고 쑤보시와 그 산하 다른 현에 거주하는 사람이 100명이다. 지난과 칭다오를 비롯한 산동성내 기타지역에 역시 100여 명이 있고 베이징과 상하이 및 톈진 등의 대도시에도 각각 30명씩 90여 명이 장기 임시거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국내 지역에 50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마을 안에 옛날의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촌민등록부에도 기록되어 있다. 촌내 거주자 중 30~50세의 사람들은 대개 인근 소도시로 출퇴근하면서 다양한 비농업직에 종사한다. 이 외에도 고급중학교와 대학 및 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70여 명이 있는데 이들은 방학에 집에 오지만 평소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낸다.<sup>3)</sup>

2) 물론 이때의 불허란 촌정부에 평당 얼마씩 돈을 내어 장기 거주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건물은 본인의 것이지만 대지는 법적으로 국가의 토지이므로 소유권은 없다.

3) 촌정부가 정확한 수치 보다 추정성 수치를 내놓는 이유는 인구의 향상적인 유동성 때문이다.

촌 정부는 90년대에 농촌발전 계획의 일부로 주택개량 사업을 벌임으로써 공식적으로 택지를 확대하였다. 분배받은 토지를 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소위 점유지(占有地)의 확대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농토의 축소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감소와 이로 인한 농촌경제의 축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산동성 전역에 걸쳐서 일어났다. 지방 정부는 경쟁적으로 경제발전의 증거를 이러한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변화를 통하여 나타내려 하였던 것이다. 농업경제가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아졌다고 할지라도 농민의 관심은 수익성이 훨씬 높은 비농업부문으로 옮겨갔으며 따라서 토지의 중요도는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복지 자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어쨌든 작은 캉(炕: 구들)식 전통가옥은 넓은 마당과 방들로 구성된 신식 콘크리트 건물로 대체되었다. 집 안에는 소파와 장롱과 화장대와 서양식 침대 등 새로운 가구들과 가전제품,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가스쿠커, 컴퓨터 등으로 채워지고 수세식 변소와 실내 목욕실이 설치되었다. 흙벽에 작게 났던 창문은 커다란 유리창으로 바뀌어 밝은 실내를 만들고 여기에 오디오 시스템과 대형 TV 세트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섰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기도 하지만 일부는 마을에서 새로운 단독주택을 짓는 것을 선호한다.

90년대에는 촌판기업이 농촌 경제의 핵심이 되면서 행정단위로서의 촌에 총공사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촌서기를 총경리라는 직함을 쓰는 식으로 경제단위로 만들었다(김광억 2000). 촌은 다양한 자회사들로 구성된 거대한 기업집단의 체제로 바뀌고<sup>4)</sup> 문어발식 경영체제로 전체 촌민들을 흡수함으로써 완전 고용을 창출하였다. 농업은 촌에 남은 부녀자들과 노인들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점차 더 많은 노동력을 비농업 부문에 투여하기 위하여 촌에서는 농업공사(農業公司)를 설립하여 촌에 배

4) 당시 중국에서는 한국의 기업경영체제를 모델로 삼는 풍조가 유행하여 대재벌기업의 '그룹'체제를 본떠서 '집단'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경제경영분야의 용어로 정착되었다.

당된 토지의 일부를 기업식으로 경영하였다. 가족경영이 가능한 집에서는 독자적으로 영농을 하였지만 전체 가족이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거나 농업노동력이 부족한 가족은 식구들의 양식과 기본경비를 보장받고 농업공사에 토지를 위탁경영 하였다. 농촌의 공업화나 향진기업의 발전을 격려하는 덩샤오핑의 정책은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을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터에 그대로 있게 하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국가차원에서의 경제적 효율성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에 앞서서 식량증산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계산에서였다. 농민은 자신의 일상세계가 경제라는 단어로 치장되는 것에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존재가 국가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성원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90년대를 지나면서 정부는 상하이 등 몇몇 국제적 대도시(metropolis)를 건설하는 거대한 개발과제에 투자를 집중하는 동시에 산업 수준의 국제화를 위하여 과감한 치리정돈(治理整頓) 사업을 펼쳤으며 이는 농촌에까지 파급되었다.<sup>5)</sup> 즉 향진기업에 대한 국가 기준을 적용하여 그 사업자격을 차별화하였는데 소규모 주먹구구식의 농촌형 향진기업은 모두 폐쇄되고 대신에 표준화된 기술과 자본을 가진 외지 기업을 유치하도록 권장되었다. 이는 농촌의 도시 종속을 가속화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 농민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고용되는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촌정부가 경제단위로서 그리고 촌민 개개인의 복지를 보장하는 조직으로서 가졌던 권력과 권위 그리고 공공의 도덕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가졌던 위상은 이제 사라졌다. 공산당의 당원으로서 촌의 치안, 생산, 규율 등등을 담당하는 직책을 누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평범한 ‘라오바이싱’(老百姓)이 되었다.

종리위(75세)는 90년대에는 촌의 건설사업의 현장에 언제나 말쑥한

---

5) 기업경영 문화의 정립에 관하여 정종호(2003) 참조.

옷을 입고 감독관의 위엄을 띄우며 서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식사시간만 제외하고는 자신이 건축공사를 지휘했던 문화관에서 장기로 하루를 보낸다. 그는 “세상이 달라져서 늙은이는 뒤로 물러나 앉는 수 밖에 없다. 상하(上下)<sup>6)</sup>가 모두 돈을 최고로 치는 판에 ‘능츠클’(能吃苦)라는 말이 이제 어디 있나? 우리가 살아온 여정을 젊은이<sup>7)</sup>들은 모른다”고 자조적으로 말한다.

2008 베이징 올림픽대회를 앞둔 지난 몇 년 동안은 전국적으로 혁명 일세대가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당과 국가의 역사로 바꾸는 대대적인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개인이 아니라 당이 주체가 되어 실천해온 위대한 변화의 기억이 공공의 역사로서 재현되는 것이다. 2006년은 특히 일 년 내내 전국의 텔레비전에서는 “홍색기억(紅色記憶)”이나 “나의 장정(長征)” 그리고 “대국굴기(大國崛起)” 등 초대형 역사극 및 교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이에 대하여 Kim 2009).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어려운 시절의 가난한 민중의 생활 장면은 방영되지 않는다. 공산당과 마오쩌둥의 굳건한 영도와 불굴의 정신이 강조되었고 백성들은 그 영도 하에서 비로소 안전과 풍요와 행복을 누렸다는 인식이 주입되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공산당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고, 하늘과 땅이 아무리 커도 모주석의 은혜만큼 클 수 없으며 …’ 등의 혁명 초기의 노래도 다시 흘러나왔다. 모택동이 그려진 그림은 언제나 환하고 행복스런 표정의 민중들이 그들 둘러싸고 우러러 보는 것들이다. 종리위는 그래서 자기들의 삶은 이제 젊은이에게도 존재하지 않고 국가의 역사기억에도 없어졌다고 불평을 한다. 오직 잘 살았던 사람의 기억만이 국가의 역사에 편입되고 ‘라오바이싱’의 구차한 삶은 역사에서 자리를 부여받지 못한다면 자는 바보로 취급된다고 한탄하였다.

- 
- 6) 상은 상면(上面) 즉 정부 혹은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며 하는 일반백성 혹은 민간을 말하는 것이다.
- 7) 니엔칭린(年輕人) 즉 젊은이들이란 말은 노인들이 10대에서 심지어 50대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기보다 연령이 낮은 사람을 거론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종리위는 중앙정부의 지도자급 간부까지도 젊은이들이란 말 속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요컨대 당과 정부는 효율성과 과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를 바꾸고 주택과 도로를 포함하여 삶의 공간구조를 재조정하였다. 가난은 곧 이러한 현대성을 향한 생활 스타일의 공간적 실천을 잘 따르지 못한 무지몽매하고 게으르고 진취적이지 못한 결과로 말해지는 것이다.

1990년대에 동잉촌에서 가장 큰 향진기업은 건축안장공사(建築安裝公司)<sup>8)</sup>였다. 청장년의 남자들은 대부분 건축안장대원으로 외지로 나갔으며 여성들의 대부분은 촌내<sup>9)</sup>에 건립된 촌판기업이나 동영촌이 속한 싱지아향(진) 및 환타이현의 기업에 취직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촌판기업 중 벽돌공장은 폐쇄되고 건축안장공사와 무역공사는 해체되었으며 종이공장, 새시공장, 식물기름공장, 제분소는 외지기업에 팔렸다. 경쟁과 전시효과에 편승하여 은행으로부터 과도한 용자가 이루어졌고 농촌의 부채가 불거지면서 중앙정부는 대대적인 경제 및 산업구조의 정리에 들어간 것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간부들이 부패와 부정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알루미늄 새시 공장을 책임졌던 티엔슈량도 그 하나였다. 촌판기업인 문시부(門市部: 잡화가게)와 약방 및 진료소가 있었던 터를 몇몇 개인이 촌정부로부터 장기 임대하여 주상복합형 2층짜리 연립주택을 지어 나누어 가졌다. 종커시는 농약과 비료 대리점을 열고 티엔나는 잡화상을 열었으며 징엔모우는 약국을 열었다. 촌정부 경영의 문시부가 해체된 대신 티엔나, 징슈에통, 티엔슈밍 전서기의 누이가 경영하는 세 개의 큰 잡화점이 들어섰다. 이들은 마을에서 가장 자본주의자라는 평을 듣는데 이 단어에는 비난과 질시와 선망이 함께 어울려 있다.

8) 건축 및 실내장식을 겸하는 기업이란 뜻이다. 특별한 고급기술보다 노동력만 가지고 뛰어날 수 있는 사업이 토목공사인 점을 감안할 때 개혁개방의 초기단계에서 많은 농촌기업이 이 건축업과 관계되는 분야에 진출하였다.

9) 실제로는 촌판기업이 거의 다수이고 몇몇이 향정부의 기업에 취직을 하였다. 현기업에는 교육수준과 특별 능력을 갖춘 경력직공이 요구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다.

[사례 1]. 종커시는 싱지아향 초중을 나온 후 싱지아향 정부의 농업담당 행정요원으로 일을 하였다. 부인인 위매이는 90년대에 촌의 부녀연맹 주임과 공청단 단장을 겸하였다. 또한 민속개혁운동의 책임도 맡아서 봉건미신을 타파하는 계몽과 감독활동을 하였다.

2002년에 그는 이전 문시부 자리에 주상복합형 2층집을 지었다. 아래층은 거실과 침실과 부엌 그리고 목욕실과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길에 면한 큰 홀은 비료와 농약 등의 대리점으로 이용한다. 본채의 뒤에는 작은 마당이 있고 창고기능을 겸한 방 한 개짜리 부속건물이 있다. 이 방에는 부처와 옥황상제를 모시는 제단이 있다. 위층은 두 개의 거실과 세 개의 침실, 부엌 겸 세탁기를 설치한 또 하나의 방, 샤워장을 겸한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 이층에는 가족 소파와 대형 오디오와 대형 TV세트가 있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게임을 즐기는 컴퓨터 세트가 있다.

이전에 그들이 살던 집은 비어있는 채로 자물쇠로 채워 놓았다. 그의 부모는 역시 동영촌에서 새로 지은 집에서 막내아들 식구를 거느리고 산다. 커시의 둘째 동생 커유에는 전문학교를 나와 린쯔(臨淄)현의 간부로 일하며 그 부인은 교사로 일하는 성시호구 가족이다. 셋째 동생인 커바오는 소학 교육만 받은 농민인데 커시는 자신에게 할당된 토지를 모두 커바오가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커시와 커유에는 현재의 집을 비롯하여 부모의 재산은 모두 막내 커바오에게 물려주라고 동의하였다.

커바오의 집은 중앙에 강이 있는 거실을 두고 세 개의 침실과 부엌 및 두 개의 창고로 이루어진 비교적 큰 집이다. 대문이 딸린 바깥채는 옛날의 건물로서 부엌을 가진 한 칸의 온돌방이다. 본채의 방 한 개는 커시의 어머니가 꾸민 제단이 있다. 제단 위에는 관운장, 관음보살, 태산낭낭, 옥황상제, 재신(財神) 등의 신상이 있고 과일과 교자(餃子)가 올려지고 향이 피어있다. 바깥채의 오랜 부엌에는 조왕의 초상이 붙어있고 특히 음력 선달 23일에 조왕이 상제를 만나러 하늘로 올라가는 날에는 이 솥에서 단 죽을 끓여 제를 올린다.

촌판기업의 자리가 개인의 주택으로 변환 과정은 이 마을의 경제적 부침의 역사를 안고 있다. 이 마을의 서기였던 티엔슈밍은 농촌발전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재직하던 1990년대의 촌락은 촌판기업의 활성화와 농촌건설이 가시화되어 전시적 효과가 극대화 되었다. 촌정부는 문명단위의 표창을 받고 동영촌은 문명촌으로 선정되었으며 티엔슈밍은 성급 모범단원으로 선발되었으며 쌍문명심성급경색패(雙文明十星級競賽牌)<sup>10)</sup>를 받은 가구가 30호가 되었다.

티엔 서기(45세)는 1998년 서기직을 사직하였는데 사람들은 이때부터 촌락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한다. 주니엔궈(48세)가 촌서기로 임명되었으나 그는 자신의 사영업에만 몰두하면서 촌 행정에 무관심하였다. 그가 1년이 못가서 그만두자 촌판기업을 담당하였던 위원 구이(42세)가 그 뒤를 이었으나 그는 티엔슈밍이 현당위원회와 향지부로부터 받았던 지원을 받아낼 수 없었다. 이미 당위원회에서는 이전에 모범 당원을 선택하여 집중지원을 함으로써 모범촌락을 만들어내었던 정책을 철회하고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결국 징상예(48세)가 서기를 맡았는데 그는 촌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촌 서기가 타던 승용차를 팔고 촌 행정건물은 민간 병원에 임대하고 앞서 보았듯이 문시부와 진료소를 이루었던 건물군을 개인에게 불하하였다. 진료소는 이전에 건립했던 경로원 건물로 옮겼다. 경로원은 90년대 당시에는 문명운동의 필수 항목이었으나 이 마을에서는 경로원에 따로 수용될 오보노인(五保老人)<sup>11)</sup>이 없었다. 통계상으로는 오보노인이 있었지만 아무도 자식의 체면을 손상시키면서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았다. 촌의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이었던 영국원(影擘院)은 다기능 문화관으로 개조되었다. 촌은 원래 이 건물로써 문명촌의 칭호를 얻었지만 그 후 재정적자로 인하여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촌절만회(春節晚會: 설날 저녁의 촌민 오락회)를 하거나 영화상영을 하였지만 결국 거의 방치되었다가 최근에 무대와 의자가 있는 극장은 그대로 두면서 부속실들을 오락실, 전뇌(컴퓨터)실, 마을도서관 겸 독서실, 체육활동실, 문예활동실 등으로 개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촌락의 경관을 이루었던 여러 부문들이 눈에 띄게 축소

10) 애당애국(愛黨愛國), 자녀교육을 중시하기(重視文教), 열심히 일하여 경제적 부를 쌓기(勤勞致富), 기율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기(遵紀守法), 풍속개혁(風俗改革), 가족계획의 실천(計劃生育), 집안의 화목과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기(家和隣睦), 근검하고 집안을 지키기(勤儉持家), 기꺼이 남을 돕기(樂於助人), 환경과 위생을 지키기(環境衛生) 등의 열 가지 덕목에서 모두 모범을 이룬 가정에 주는 상이다.

11) 국가의 복지혜택의 대상인 노인을 말하는데 독신으로 늙었거나, 봉양할 자식이 없거나, 과부 혹은 홀아비, 그리고 마땅한 경제력이 없는 범주의 노인을 말한다.

되었다. 징상에는 촌민들이 소질이 낮아서 집체정신을 포기하고 각자가 생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하였고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윤리와 도덕이 해이해졌다고 불평하였다.<sup>12)</sup> 그리고 티엔슈밍이 무리를 하여 촌락을 망쳤다고 비난하였다. 젊은이들은 징상예가 모택동 시절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하였다. 후진타오 정부의 출발과 함께 티엔슈밍의 동생인 티엔슈궈(42세)가 서기가 되었다.

티엔이 서기를 맡으면서 촌민의 주택규획 사업이 완결되었다. 이미 70%가 진척이 된 상태에서 완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정부 측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촌민들은 고르게 뻗어나간 포장된 넓은 길과 일정한 규격으로 지은 새로운 스타일의 가옥 앞에서 ‘살기좋은 세상’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징상에는 이러한 사업은 집체경제 때문에 기능하였다고 평한다. 즉 촌판기업의 수익일부를 공익금(公益金: 촌민 복지사업을 위한 공금)으로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며 오늘날 처럼 각자의 능력으로 개인의 복지를 감당해야 한다면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집의 규모나 디자인이 통일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촌 정부 건물의 후면에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층집들이 지어져 있다. 전통시대 고관이나 거부들의 저택처럼 사자의 머리로 조각한 홑쇠 손잡이가 달린 높고 큰 붉은색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위용을 자랑하는 이층 건물이 서 있다. 번들거리는 대리석이 바닥에 깔리고 천정에는 상들이어가 걸려 있는 커다란 응접실은 화분으로 장식되어 있고 가죽 소파가 놓여 있는 뒷벽에는 산수화나 외국의 풍경사진 혹은 만리장성의 타피스트리가 걸려 있다. 맞은편에는 오디오시스템과 대형화면의 TV가 그리고 정면 벽에는 국가지도자들의 모습을 담은 대형 달력

12) 정신문명론 다음에 2000년대에는 쑤쯔(素質)론이 유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이 소질론은 후진타오의 바룽바쯔(八榮八恥)론으로 발전되었다. 소질론의 정치적 함의와 실천에 대하여 Cohen, M.(1993); Kipnis, A.(2006); Yan H.(2003) 등 참조.

이 걸려 있다. 애초에는 정부의 제삼차산업 유도에 응하여 촌정부에서 관광산업 개발 계획을 세우고 외부인 접대용 현대식 건물을 짓도록 토지전용 허가를 내었는데 곧 치리정돈 운동에 의하여 실효성 없는 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택지는 촌의 간부 혹은 유지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건축안장공사 총경리였던 종수에잉, 티엔슈밍 서기의 사촌형이며 조해위원 겸 수의사인 티엔슈민, 건축안장공사 회계였던 종수에쿵 등이 이런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이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불평을 하지만 이들은 마을의 빛을 갠기 위하여 자신은 반강제적으로 돈을 더 내고 택지를 갖게 되었다고 항변한다. 진이나 현정부의 간부들이 상부에서 파견된 인사를 모시고 시찰을 오면 이러한 집에 들러서 차를 마시고 후진타오 주석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강화를 되풀이 하면서 집 주인을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화해정신의 구현자라고 칭송한다.

이에 비하여 전체 가옥의 20% 정도는 아직도 주택계획 사업에 가입하지 않고 버티면서 옛날의 흙벽돌 집을 고수하고 있다. 새로 난 길에 면한 집들은 모두 신형 가옥으로 바뀌었으나 골목 안이나 마을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지역에 있는 집들은 상당수가 이전의 집을 지니고 있다. 이는 모두 획일적으로 지은 새 주택에 비하여 더 크고 마당이 넓어서 화단과 포도나무나 오동나무가 있는 운치가 있는 집들이다. 이들 집의 주인은 몇 몇 외지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 외에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며 퇴휴하기까지 교사나 비농업 부문의 간부직을 지낸 사람들이다.

[사례 2]. 정상에는 넓은 마당과 거주공간 그리고 오동나무가 자란 전통적 전원주택의 분위기를 위하여 계획사업에 끝까지 가담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의 담장을 둘러친 외벽에 딸린 대문의 기둥에 ‘근검(勤儉)’과 ‘중화(中華)’라는 글자를 새긴 벽돌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길이 보존해야 할 당의 정신이라고 항변하였고 모두 ‘애국심’의 표현물을 파괴할 수는 없다는 데에 동조하였다.

외지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퇴직 후에 귀향한 종리원(68세)도 계획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너른 마당과 큰 집을 계속 지키게 되었다. 그의 집은 방이 5개가 딸린 크고 긴 전통가옥이다. 지붕은 띠를 입히고 벽은 하얀색 칠을 하였으며 흙벽돌로 담을 둘렀다. 대문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어서 오월이면 연꽃이 아름답다. 집안의 정당으로 들어서면 전통적인 팔선탁(八仙桌) 위에 영도자 달력을 걸어놓고 양쪽으로는 효도와 학문을 권장하는 글의 대련을 붙여놓았다. 북쪽으로 면한 바깥벽에는 ‘태산석감당(泰山石勘當)’이란 부적이 붙어있는데 이는 오랜 세월동안 이 마을을 액으로부터 보호해 왔다. 현재의 집 건물과 태산석감당 신은 함께 있는 것이므로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신을 파괴시킨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논리에 간부는 촌정부의 통일규획된 주거집단의 멋진 그림에 따르는 것이 공민으로서의 합당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채근하였으나 주민들은 이제는 각자가 도모하는 마당에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태산석감당이라도 지켜주는 것이 마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동조하였다.

중용인(72세)은 천주교 신자의 지도자이다. 그의 집은 70년대의 건물로서 대문에는 십자가와 하느님의 은총으로 국태민안과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축원문이 붙어있다. 그의 집 안은 정결하며 기독교에 관련된 그림과 글들이 벽을 장식한다. 마당에는 무성한 오동나무가 있고 담 벽에는 풍성한 수세미 넝쿨이 아름다운 정경을 자아낸다. 적어도 국가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사랑을 기원하는 한 그의 집은 국가와 하느님의 화해를 지지하는 생산적 공간이다.

촌정부의 앞길과 뒷길에 늘어선 이층집들로 대표되는 개량가옥들과 골목 안에 있는 전통적인 가옥의 두 부류에 대하여 향정부나 현정부 간부들은 전자를 농촌발전의 증거로 칭송하며 후자를 낙후의 잔재로서 공개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동시에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기회가 되면 이러한 전통적인 집들이 소개되기도 한다.

한편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을에 옛날 주택과 촌민 호구를 그대로 소유한 채로 인근의 수오진에 조성된 아파트단지로 이사하였다. 수오진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수오진 정부에 신청하여 도시거주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임시거주자의 자격으로 자녀를 수오진의 학교에 다니게 하면서 동양촌민의 자격으로 농토를 배당받고 농민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사례 3]. 티엔슈밍은 1998년에 서기직을 사직하고 환타이현의 소재지인 수오진에 새로 개발된 고급주택단지로 이사하여 나갔다. 그는 서기로 있을 때 농촌간부의 신분상승을 위한 정부의 배려로 2년제 방송통신대학의 과정을 이수하였고 퇴직과 함께 성시호구를 획득하고 수오진으로 이사하여 퇴직간부의 연금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의 장녀는 수력전문학교를 나와 성시호구를 획득하여 유전도시인 동잉시의 수도국에서 일을 하고 둘째 딸은 간호학교를 마치고 수오진에 살면서 싱지아향 병원에 근무한다. 막내이자 독자인 아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동잉시의 승리유전에 근무한다. 티엔슈밍의 부인만 유일하게 농민호구를 가지고 있어서 동잉촌의 토지를 분배받았다. 그 토지는 티엔슈밍의 동생이 경작한다. 동잉촌에 있는 그의 집은 부인의 소유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비어있으며 가끔 그들 부부가 다녀간다. 그들의 생활세계는 수오진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동잉촌민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개인의 삶의 보람과 개인의 존재를 확인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인 경험이자 증거가 된다. 농민은 소유권을 전민(全民)소유라는 이념에 의하여 국가에게 넘긴 이래로 국가에 의존하는 신세가 되어왔다. 이전의 지주나 부농이 살았던 규모가 큰 집은 언제나 혁명이전 시대의 부패와 봉건 착취의 증거물로 인식하도록 교육되었다. 그러한 집은 탁아소나 유아원 혹은 진료소와 같은 공공기구로 전환됨으로써 신중국의 당과 국가의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온정의 체현 공간으로 바뀌었던 것이다(김광익 1993).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자신의 개인소유가 아닌 토지에 개인의 집을 크게 짓는 것은 사상적 오염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유제를 부정하는 국가의 법에 맞서서 개인적인 욕망을 실천하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은밀한 공간의 확보 이상으로 중요한 변화를 상징한다.

‘멋진’ 새 집을 짓는다는 90년대에 개인의 치부행위에 대하여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도덕적 타락인지 아니면 등소평의 개혁개방과 선부론을 실천하는 올바른 공민의 도를 실천하는 것인지를 두고 벌였던 논쟁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갈등이 대두되면 농민들은 언제나 화해를 내세

운다. 후진타오가 제창하여 국가차원의 공공의 도덕으로 확립된 화해(和譜)정신은 개인의 욕망을 국가권력의 틀 안에 정착시키는 논리를 제 공한다.

30대의 젊은 부부가 사는 집에는 예외 없이 신형 오토바이가 있고 집안에는 서구의 연미복이나 파티복 차림의 신혼부부가 꺼안고 애정을 나누는 모습을 담은 감미로운 색깔과 사랑에 대한 영어를 새겨 넣은 대형 사진들이 걸려 있으며 DVD 세트와 오디오 시스템, 대형 화면의 TV 등이 있으며 두터운 매트가 깔린 서구식 더블 침대가 놓여 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필수적인 가전제품이 되었다. 부모 세대들이 사는 집은 이와 대조를 이룬다. 옛날 집은 대문 기둥을 ‘근검’(勤儉) ‘건국’(建國) 등의 글자를 새긴 벽돌로 장식하고 이제는 빛이 바랜 ‘문명호’(文明戶)라는 양철로 만든 표창패가 박혀 있으며 집 안에는 여전히 모택동과 그를 찬양하는 문구가 크게 씌여진 달력이나 등소평과 주덕 주은래 등의 영도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나무로 만든 긴 의자는 얇은 스펀지로 쿠션을 한 등받이를 하였고 역시 나무판 위에 두터운 솜 요를 깐 침대가 고작이다. 1990년대 들어서 새로 지은 큰 집은 대문이 아주 크고 대문 양쪽 기둥 앞에는 돌사자 한 쌍을 놓았다. 지난 시대의 봉건지주나 귀족의 집에 대한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다. 새로 지은 집에도 자세히 관찰하면 액막이를 위하여 ‘길상高照’(吉祥高照)라는 패(牌)를 높이 세우거나 ‘태산석감당’(泰山石敢當)을 담 벽에 붙이거나 대문 윗부분에 거울을 달거나 악귀를 내쫓는 그림을 붙여서 풍수처리를 하였다. 집 안에는 옥황상제, 관음보살, 태산낭낭의 신상과 재신과 조왕의 그림들이 역시 붙어있다. 그러므로 소비생활에서의 세대적 취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관련된 이념적인 자세에 있어서는 모두 과학과 동시에 전통적 신앙체계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집 바깥의 마을은 규율, 질서, 법, 과학, 효율성, 공동체의 도덕 등 국가 이성과 현대성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매일 위생원이 비로 쓸어서



깨끗한 길옆으로는 계획생육, 환경보호, 화해(和諧)사회 건설, 팔영팔치(八榮八恥) 등의 구호를 내건 전봇대가 정연하게 서 있다. 길에 면한 담 벽에는 공산당의 위업과 과학적 생활의 계몽선전 그림들이 전시된다. 이에 비하여 집 안은 사적인 공간이다. 거기에는 다양한 취향과 가치관과 정서와 감정이 각자의 스타일로 표현되고 실천된다. 집은 외부의 국가권력과 이념에 대하여 태산석감당의 신이 개인의 사적 생활을 지켜주는 세계이다. 티엔슈밍과 징상예의 입장은 국가가 매개하는 글로벌 모더니티와 지역 사회의 아이덴티티, 문명과 문화, 미래에 대한 상상과 역사적 기억의 보존 등에서 대조를 보여준다.

### 3. 도농 경계의 모호성

마을 내부의 공간구성과 집안의 장식과 규모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 세계의 공간적 이동과 자유로운 결정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민공조(民工潮) 혹은 유동인구의 물결이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부각되었으나 동잉촌에서는 전체 촌민을 촌판기업에 묶어 둘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촌이 집체적 경제단위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호구의 구속력이 무색해짐으로써 농민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각자 개별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연망과 실질적 행동의 영토를 촌락의 경계를 넘어서 인근의 도시와 지난이나 칭다오 등의 성(省)내 도시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같은 대도시로 넓히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통과 통신의 발전이다. 넓고 곧게 뻗은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대중교통 수단이 보급되었다. 여러 촌락에는 소형차로 택시영업을 하는 개체호가 있어서 언제든지 전화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오토바이는 한 집에 한 대는 있고 심지어는 승용차와 트럭 또는 소형 트럭승용차가 생겼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웃마을이나 가까운 소도시로의 출입을 자주한다. 토지 경작권이 촌민에게 있지만 타지인에게 소작을 시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소규모 농업공사가 조직되어 외지의 사람들이 촌의 토지를 촌정부나 개인으로부터 승포(承包)하여 농사를 짓는다.

초급중학교는 싱지아향의 연립중학교로 통합되었고 소학교 역시 싱지아촌의 학교로 통합되었다. 초중생은 자전거로 통학을 하며 소학생들은 버스로 등학교를 하는데 교통비는 촌정부가 반(半)을 보조하고 각 가정이 나머지 반을 부담한다. 버스는 동잉촌의 종치양이 개체호 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즉 촌락단위의 일상생활 세계의 경계는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촌락이 단위로서의 의미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자의 쉼 곳에 대한 권리 즉 묘지사용권에만 작용한다는 점일 것이다. 결국 그들의 생활세계는 더 넓어졌지만 더 쉽게 접근되게 되었다.

물리적 공간 외에 전화와 텔레비전의 보급은 정보와 상상의 세계를 확장하였다. 90년대에 전화기는 권력과 지위의 상징으로서 촌락에는 간부와 몇몇 엘리트의 집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전화기는 향정부의 교환실을 통하여 외부와 연결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촌민의 가정에 자동 전화기가 설치되어 국내외로의 통화가 자유롭다. 여기에 휴대폰의 보급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체적 물리적 이동을 하지 않고도 통화의 연망으로써 그들의 일상세계의 영토를 무한히 확장하게 만든다. 징슈통의 큰 딸은 최근 한국에 어학연수 겸 단기취업을 위하여 갔는데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는다. 그는 한국에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한국은 바로 이웃이며 중국 내에서 북경이나 상해가는 것 보다 더 가깝다고 여긴다.

생활세계에 관한 도농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을 경험하는 가장 새로운 영역은 소비의 공간이다. 90년대에 촌에는 촌정부가 운영하는 식당이 세워져서 사람들은 만두를 사먹고 손님을 치를 때에는 요리를 배달

시켜 먹거나 식당에서 연회를 즐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촌판기업 정리와 함께 그 식당은 없어졌으며 대신에 종업원이 개체호로서 식당을 열었다. 그러나 그 수준은 낮으며 보다 중요한 연회는 인근의 진이나 현 소재지에 갑자기 늘어난 각종 규모의 고급음식점을 이용한다. 이전에 수오진이나 쯔보시의 호텔은 농민으로서는 갈 기회가 없는 먼 곳이었지만 이제 결혼식, 생일잔치, 환갑잔치, 가족모임 등을 하는 장소로 이용된다. 수오진의 다기능적 시설을 갖춘 새로운 식당에서 산동요리 외에도 사천요리, 광둥요리, 강절요리, 상해요리 등을 구별하여 즐기게 되었고 몽골 특색인 쇠양로우(涮羊肉: 신선로 모양의 그릇에 먹는 양고기 사부샤부) 그리고 신강 위구르족의 민족음식인 양로촐(羊肉串: 양고기 꼬치구이) 등 별식이 유행한다. ‘농지아러’(農家樂)<sup>13)</sup>나 관광식당도 들어섰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물리적 공간이 바깥 세계로 확장됨과 함께 농촌에 소비생활의 대대적인 유입되어 사람들의 인식의 지도가 확장된다. 90년대 초반까지 정부는 특별히 농촌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김광익 1993, 2000 참조). 그 주된 내용은 민속개혁이란 이름하에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며 특히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농촌에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일부의 보조 및 할부제도를 도입하여 가전제품의 소비를 권장하였다. 정부는 적어도 소비생활에 있어서 농촌과 소도시 사이에는 차이가 없게 되었다고 공언하며 소비욕구의 증대는 생산을 촉구하는 애국적 행위로 정당화되었다. 징상에는 갑자기 높아진 농촌의 소비생활을 농민경제와 산업을 파괴하는 도시산업의 장난의 결과라고 의심한다. 그러나 40대의 젊은 간부들은 그가 낡은 사상에 머물러 있다고 폄하한다.

13) 관광산업의 진흥정책에 부응하여 도시 교외의 농가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에서 나온 것이다. 관광농장의 개념에 해당하지만 거의가 전원의 분위기 속에 농가 음식을 즐기는 것이다. 농지아러에 대하여 Park(2008), 농촌의 관광산업에 대하여 Yang(2006) 참조.

자라나는 세대에게 높은 삶의 질을 향유케 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징상에는 농민이 자녀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인하여 이미 농가의 빛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소비를 조장하고 젊은 간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오직 시세에 순응하기만 한다고 비난한다.

도시적 소비의 농촌화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제 농민은 생활세계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구분은 없어졌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도농의 지리적 경계 뿐 만 아니라 문화적 경계도 모호해진 오늘날 농민은 굳이 도시로 이주해 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물론 도시의 아파트는 농민의 수준으로는 구입하기가 아주 비싸며 농촌의 개별 주택에 비하여 도시 아파트는 편리한 점이 많지만 관리비가 있고 도시에서의 생활비는 비싸다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일단 농촌에 머무는 전략을 고려하도록 만든다.

#### 4. 생활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인간관계

1990년대에 이 마을은 평소에는 노인과 중년 이상의 부녀자 그리고 초급중학까지의 아이들만 있었다. 대부분의 노동 가능한 남자와 심지어 젊은 여자들은 촌판기업에 종사하였다. 부녀자들은 재촌 공장에 다니면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남자들은 주로 건축안장대의 대원으로서 외지의 현장에서 장기간 집단생활을 하며 지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는 춘절에 귀향하여 원소절(元宵節: 정월 보름)까지 휴식하였고 봄가을 농번기에 3일씩 잠시 귀향하여 농사일을 하였다.

마을이 경제공동체적 단위였으므로 촌민이라는 신분이 가장 중요하였다. 그것은 사회적 정치적 정체성의 기반이기도 하였다. 마을 안에서는 가족 및 종족관계가 사회적 자원으로서 중요하였다. 비록 집체주의적 가치관과 이념이 공론을 지배하였지만 일상생활에서 종족 간의 경쟁

은 항존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생활 영역의 확장에 따라 동창관계가 촌락의 경계를 넘어선 사회적 자본으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중요한데 남계친 못지않게 처가와 외가의 중요성이 부활하고 외지 적응과정에 일종의 동향회가 조직되는 흥미있는 변화가 관찰된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개발은 전통적인 가족관계 혹은 개념의 변화와 연결된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아들이 외지에 나가면 아버지가 며느리 및 손자들을 감독하는 대가족적 가족개념이 있었다. 분가를 하여 경제적인 독립된 단위를 이루고 살면서도 할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한 가족이라는 감정적 유대와 윤리의식을 가졌던 것이다. 경제적 단위를 넘어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이념을 실천하는 이러한 중국적 가족 관계는 이제 촌/향/진/현/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시와 성으로 까지 확장된다. 부모는 외지로 이사를 간 자식들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고 명절이면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사례 4]. 종지룡(56세)의 장남은 체육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체육 교사로서 쑤보시에 거주하며 차남은 칭다오에서 자영업을 한다. 종지룡은 옛날 집을 그대로 소유하지만 언제나 비어있다. 농민으로서 토지를 분배받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이사를 가지 않는 대신에 아들의 집들을 전전하면서 머물기를 좋아한다. 전통적인 윤류(輪流)를 즐기는 것이다. 평소에는 자식들이 자기 일에 매달려 있어서 고향집을 찾는 일이 거의 없고 부모가 오히려 자식의 집으로 다니지만 춘절이 되면 모든 자식들이 촌에 있는 부모의 집으로 모인다. 이들은 함께 투안유안판(團圓飯: 전체가족의 회식)을 먹으며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의례를 행하며 이웃 친척과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어디를 가나 동이촌 출신’이라는 뿌리의식을 재생한다.

한편으로 개인적인 사업을 위한 도움을 받는 데는 남계친보다 처가의 관계가 더 유용할 때가 많다. 그래서 남계친 사이의 왕래보다 점차 처가와외의 관계를 활성화하는 추세를 감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계획생육의 결과로 독생자의 증가가 그러한 경향을 낳는다고 설명을 한다. 처

가관계가 증시되는 이유는 또한 남계친 형제인 경우 종종 그 부인들 사이의 경쟁심이 긴장관계를 낳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에 농촌에도 계획생육 운동의 결과 출산이 줄어서 아들 딸의 구분이 그리 심하지 않고 또한 소황제는 여섯 개의 돈주머니를 차고 다닌다는 말이 있듯이<sup>14)</sup> 농촌에서도 점차 양가에서는 손자 혹은 손녀를 공동의 자손으로 취급한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부부가 취업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길 때에 아이를 맡기고 도움을 받기 위하여 처가에 가까운 곳을 찾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친가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대신에 실질적인 이해를 따져서 친가나 처가 근방에 사는 것을 결정하는 풍조가 생겨나는 것이다.

[사례 5]. 티엔화(28세)는 이웃 티엔쥬진에서 장가를 들어 왔다. 신부의 명의로 친정부로부터 택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오토바이로 티엔쥬진의 알루미늄 파이프 대리점에 함께 출퇴근을 한다. 낮에는 장인과 장모가 어린 손자를 돌보고 집을 지켜준다. 대리점을 열 때 필요한 사업자본금은 처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실제로 친가에서는 형제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장인과 처의 형제들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한 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의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장모인 장노파는 자녀의 수가 줄어든 오늘날에 아들 딸 구별이 없어지며 아들은 키워 놓으면 자기 처의 말만 듣는데 비하여 딸은 시집을 가서도 늘상 부모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딸이 더 좋다고 말한다. 그러한 딸이 가까이 사는 것이 노후에 즐거움을 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탈가족적 관계가 발전하는데 최근에는 학맥 즉 동창관계와 외지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동향관계가 새삼 중시된다. 동잉촌에서 50대 이상의 촌민 중 싱지아향 초급중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들은 모두 촌이나 향정부의 농민간부로서 비농업 사무직을 담당하였고 90년대에는 촌판기업이나 촌정부의 행정간부로

---

14)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한 아이를 따라 다니면서 애지중지하며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는 뜻.

일을 하였다. 2005년에 처음으로 싱지아초급중학 동창회가 설립되었다. 그들은 회합을 통하여 인맥을 확인하고 취업에 서로 소개시키고 보증을 하며 촌 내외의 여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지배하는데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이 마을에 종슈에쿵은 싱지아 초급중학 동창회의 대표이다. 그는 촌 내의 동창들을 주위의 기업과 공장에 취직시키는데 열심이다. 촌 서기인 티엔슈귀는 종슈에쿵의 소개로 그의 동기동창인 이웃 장모우촌의 장엔충의 지휘 하에 산동성의 최대 기업집단의 하나인 동유에집단(東岳集團)의 하청 공장을 책임 맡고 있으면서 동잉촌 출신의 합동공(계약직)의 신원보증인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주 서로 집으로 초대하여 술자리를 같이하면서 옛날 가난하던 시절 학교를 다녔던 추억을 되살리면서 감정적 유대를 강화한다. 티엔슈귀가 촌서기에 당선되는 것도 종슈에쿵이 도운 것이다. 그는 마을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하여 같은 종씨 출신의 후보자 대신에 티엔슈귀를 지원하였고 초중동창생들의 인맥이 작용하였다.

초중 졸업생 중에는 계속 고급중학에 진학하고 나아가서는 대학에 진학하여 고급간부가 된 사람도 있어서 학맥은 촌락의 지연이나 혈연을 넘어선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자본임이 재인식되었다. 그래서 친척의 경조사 보다 동창의 경조사에 더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부조금의 액수에도 신경을 쓴다. 그들은 자주 서로 방문하거나 식당에서 함께 연회를 즐기거나 일이 있을 때 마다 모여 의논을 하고 서로 돕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러므로 집안에는 가(家)와 학(學)이라는 글자를 크게 쓴 족자나 장식품이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동창관계의 중요성은 곧 교육 중시의 풍조를 의미한다. 이 마을에서 초급중학 졸업생의 반 이상이 고급중학에 진학한다. 이전에는 환타이제1중학이 유일한 고급중학이었으나 최근 티엔쥙에 제2중학이 설립되어 농민자녀의 고등교육 진학열을 수용한다. 중전(中專)은 수력학교 세

무학교 간호학교 등 실질적인 하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며 대전(大專)은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설계, 기계기술, 치과, 컴퓨터학 등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 코스이다. 동양촌에서 2005년에 고급중학에 진학한 학생은 45명이며 그해 대학에는 16명이 진학하였다. 고급중학은 환타이현 외의 다른 지역의 학교로 유학갈 수도 있다. 대학에는 지난, 칭다오, 쑤보, 옌타이 등 성내의 여러 지역의 학교뿐만 아니라 베이징, 톈진, 상하이, 난징, 그리고 심지어는 스촨성이나 광둥성의 학교에까지 진학을 한다. 대학은 자비 부담제이므로 사실 대학진학은 학비, 기숙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경제력을 갖춘 집에서만 가능하다.

이들은 졸업 후에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교사나 행정관리 또는 기업체 직원으로 취직한다. 물론 이들은 성시호구로서 농촌으로부터 토지를 분배받을 수는 없다. 이들이 취업에는 동창관계 뿐 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관계도 역할을 한다. 부모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동창관계를 동원하여 자녀의 진출에 도움을 준다.

[사례 6]. 징춘에는 치과 전문학교를 나왔다. 그는 성시호구를 취득하였으므로 동양촌으로부터 토지를 배당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촌 출신인 그의 부인은 고등학교만 졸업하여 농민호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토지를 배당받고 부모의 도움으로 촌정부로부터 주택용으로 토지전환 허가를 받아서 새집을 지었다. 심지어항 북동쪽 50킬로 떨어진 가오칭에 개업을 하였는데 그의 환타이제1중학 동기생이 처가가 있는 가오칭에 개업하기를 추천하였고 마침 아버지의 초중 동창생이 가오칭현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의 소개와 지원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 그는 오토바이로 출퇴근한다. 매일 편도 50분씩 걸리는 거리이지만 가오칭에 집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시설이 좋은 새 집이 별로 없으며 좋은 집을 살 만한 경제력이 없다. 또한 환타이현 출신인 그가 그 곳에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히려 동양촌에서 집을 보장받는 것이 이제 막 살림을 차린 그들에게는 중요한 뒷받침이 된다.

징춘에 의하면 가오칭은 쑤보시와 동잉시의 중간에 위치한 낙후한 곳이라서 생활근거로 삼을 매력에 없다. 유전도시인 동잉시로 나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더러 역시 가장 변화한 중심지인 쑤보시 가까이 사는 것이



좋다. (쯔보는 산동성에서 지난과 칭다오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이다) 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수오진이나 쯔보시로 놀러나 갈 수 있다. 그의 꿈은 돈을 벌어서 쯔보시로 옮겨 사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대학 동창생이 졸업 후 베이징의 한 기업체에 취직을 하였지만 월급이 3000 유엔이라면서 그것으로 손바닥만 방 한칸의 월세를 800유엔 내고 도시에서 최저의 생활비를 감당하다 보면 전혀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 자신은 월수입이 4~5,000유엔이 되는데 집값이 들지 않으며 기본생활은 마을에서 해결되므로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훨씬 유리한데 왜 대도시로 나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고 반문한다. 현재 집안에는 모든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어서 농촌에 살면서도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문화생활의 향유가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젊은이들은 도시생활이 뭣이든 농촌보다 돈이 많이 든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돈만 있으면 호구도 바꿀 수 있으며 농민이라고 언제까지 농촌에만 처박혀 지내야 하는가라는 반문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유동인구에 관한 저간의 연구들은 거의 대도시로 몰려오는 가난한 농민의 무리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진입하려는 강렬한 선호도를 지적한다. 인구의 도시이동은 전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좀 더 지역적인 맥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각각 흥미로운 인구이동의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잉촌의 경우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에서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그들은 산동성 안의 도시에 머물기를 즐겨하고 고향과의 왕래가 쉬운 곳에 자리를 잡으려는 성향을 갖는다. 언어나 습관 그리고 인맥을 따질 때 굳이 낯설고 외로운 먼 객지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산동은 내륙지방과 달리 경제수준이 높은 지방이므로 수익 면에서 굳이 다른 지역에 나가서 취할 필요가 크지 않다. 그래서 지난, 칭다오, 쯔보, 옌타이, 웨이하이, 르자오, 타이안 등등의 도시에서 충분히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다. 게다가 거기에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동창들이 있고 친척을 통한 인맥이 있다. 산동인에게는 ‘리투 뿌리상’(離土不離鄉: 땅은 떠나도 고향은 떠나지 않는다)의 관념이 강하

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이 고향에 남을 수 있게 만드는 산동성의 높은 경제적 수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때의 고향은 촌락을 넘어서 자신의 사회문화적 아이덴티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지방세계를 의미한다. 여기에 호구제도의 해체 내지 유연성은 오히려 리스크를 담보로 하는 유동인구 대신에 고향에 터를 잡은 채 필요에 따른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이농과 이촌 현상을 만들어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고학력자 뿐 만 아니라 보통 수준의 교육과 경제적 배경의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보인다. 그들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고향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대도시에 나가서 외롭고 힘든 농민공의 삶을 겪기보다 농촌에 터를 잡고 인근의 소도시에 출퇴근을 하거나 가까운 도시에 이주하는 것을 선호한다. 산동성의 경제수준에서 볼 때 대도시의 농민공이 되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는 것이다. 동잉촌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전의 건축안장공사가 해체된 후 건축대장들이 개인 영업체로 재편한 건축공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외지에서 일한다. 종슈에밍의 팀은 톈진에서, 징옌진의 팀은 지난에서 일을 하며, 종창은 두 개의 팀을 조직하여 운영하는데 하나는 칭다오에 또 한 팀은 엔타이에서 일을 한다. 이러한 외지에는 동잉촌 출신끼리 특별한 상부상조 관계가 이루어진다. 나아가서 싱지아향 출신이라는 배경에 따른 친목 모임이 조직되어 서로 돕는다.

또한 이전에 비하여 촌락에 실제로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바, 인근 탕산진에 산동성의 대형 기업의 하나인 동유에집단이 들어와서 농촌 노동력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수오진과 티엔쥡 등지에도 대기업의 하청 공장들이 들어서서 이들은 이제 촌락에서 살면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한다. 이렇게 외지의 대기업이 현지 노동력을 고용하게 되면서 노동의 질을 보증하는 교육배경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그리고 동창관계가 취업의 정보나 알선에 작용한다. 이제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동창관계가 촌락을 넘어서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적인 관계

는 그들에게는 신뢰의 기반이다.

[사례 7]. 종홍은 쯔보시 교외의 한 알루미늄 파이프 공장에서 일을 한다. 그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으므로 작업팀의 팀장이 되었다. 팀장들 중에는 그와 같은 학교 출신들이 많아서 그들이 모이면 동창회를 한다는 농담이 있다. 공장장은 교육은 개인의 자질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공정한 평가 기준의 하나이며 동창관계는 신뢰를 보장하기 때문에 인간 관리에 많은 보탬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최근에 종홍의 부인은 쯔보시에 휴대폰 전화기 판매점을 차렸다. 그녀는 다른 촌의 출신이지만 같은 고등학교 동기생인 친구와 합작을 한 것이다. 이들 부부는 보통 오토바이로 함께 출퇴근을 한다.

촌락이 집체단위로서 외부 세계와 명백히 구분되었던 90년대에 비하여 이제 촌락 간 그리고 향진 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계의 모호성은 소비생활과 취업과 교육의 탈경제적 확산과, 사람의 이동과 정보의 교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교통과 통신의 확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상세계를 이루는 전통적인 혈연과 지연의 문화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학연을 비롯한 관시의 재생산은 향진의 경계를 넘어선 지연의 또 다른 내적 분화의 한 항목일 뿐이다.

## 5. 결론

현대중국에는 전근대와 근대 그리고 탈근대가 공존한다. 그것은 급격한 변화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는 일시적인 문화지체가 아니라 오랫동안 중국사회를 구성하여 온 정상적인 문화적 복합체적인 것이다. 저간의 연구들은 대개 현대사회의 급격한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단위제의 해체로 인하여 개인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사회적 경제적 자원으로선 전근대적인 문화와 사회적 제도가 부활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근대와 탈근대 그리고 국가와 사회 사이의 경쟁과 긴장의 관계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긴장뿐만 아니라 공존과 공모가 함께 존재하여 온 것이다.

국가로부터 봉건시대의 잔재이거나 개인의 낮은 소질(素質)의 발로로 비판되었던 혈연과 지연 혹은 동향관계의 부활 추세를 두고 국가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규정하는데 비하여 시민사회론자들은 국가권력에 대한 사적 공간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평가한다. 그러나 국가 이성에 의하여 부정당했던 시간과 공간의 이러한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과거를 구성하였던 인간관과 인간관계의 재현을 통하여 현재적 생활세계에 의미를 주는 사회적 문화경관을 구축하고 확대하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이는 농민의 저항과 속임수 그리고 도전일 뿐 만 아니라 국가와 전통의 공모이다. 정부는 혁명 과정의 역사를 현재의 영광에 연결시킴으로써 그 존재를 정당화 한다. 역사인식에 현실의 옷을 입히는 가장 직접적인 세계는 일상세계의 실천 공간이다. 장소의 구성으로부터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읽고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이 장소가 제공하는 경험의 해석을 둘러싸고 정부와 인민은 촌락의 주택규획사업에서 보듯이 대립이 일어나지만 그 대립된 경관은 맥락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 사이에 타협과 공모를 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또한 농가의 담 벽에 과학국가의 선전판과 태산석감당의 위패가 마주하고 있는 광경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대립이기 보다 적당한 타협과 의도적인 회피인 것이다.

정부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농민에게 임시거류증이나 도시호구를 발급해주고 아동의 등교를 묵인하므로써 가난한 도시민 대신에 부유한 농민으로 새로운 공간의 점유자를 대체하며 농민은 자신이 도시건설의 역군이 되는 자부심을 맛볼 수 있다. 반대로 퇴휴간부나 도시인이 농촌으로 들어와서 전원을 즐기는 일도 생긴다. 이러한 일은 모두 일시적으로는 새로운 현상이고 국가

시책에 저항하는 시민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도시와 농촌의 경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별개의 사회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 체계(continuum)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Redfield 1955).

그러므로 농민의 생활세계의 확장은 그 동안 국가권력에 의하여 부정되었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관시(關係)를 새로운 형식으로 활성화하게 만든다. 이는 전통적인 윤리와 인간관의 실천이지만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대한 전략적 적응기재의 개발인 것이다 (Kipnis 1997; Yan 1997; Yang 1994). 국가가 개인의 복지를 책임지던 시절에 관시는 공동체 단위의 경계 안에서 중시되었으나 개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 많은 부분이 취소되고 각자의 경쟁력 혹은 적응력에 의존하게 된 현재에는 새로운 관계의 개발이 두드러진다. 그것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였던 경제적 경계가 애매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농민이 일상생활의 세계를 전략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현실을 반영한다. 농민은 그들의 일상세계가 어떤 항목으로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채워지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을은 곧 그들에게 역사의 기억의 장이며 국가의 힘과 지방의 전통이 경쟁과 공모를 시도하는 공간이다.

논문투고일(2009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2009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2009년 12월 21일)

## 참고문헌

김광억

1993 “현대중국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운동과 민속의 부활”, 『비교

문화연구』 창간호.

1995 “현대중국에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 가와 종족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5(1).

2000 『혁명과 개혁 속의 중국 농민』. 서울: 집문당.

2002 “중국연구를 위한 인류학적 패러다임 시론: 문화접점론과 국가-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3).

정종호

2000 “중국의 유동인구와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 북경 절강촌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6(2).

2003 “재중국국제 기업 경영 현지화에 대한 문화적 영향: 개혁개방기 중국의 정리법 문화구성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9(2).

李培林, 李强, 孫立平等

2004 『中國社會分層』.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李强

2004 『農民工與中國社會分層』.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Cohen, Myron

1993 “Cultural and Political Inventions in Modern China: The Case of the Chinese ‘peasant’,” *Daedalus* 122(2).

Connerton, Paul

1989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vis, Deborah. and Steven Harrell eds.

1993 *Chinese Families in the Post-Mao Er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vans, Peter., Dieter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entress, James and Chris Wickham

1992 *Social Memory*, Oxford: Blackwell.

- Gupta, Akhil and James Ferguson. eds.  
 1997 *Culture, Power, Pla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Kim Kwang Ok  
 2009 "Reflections on China's Power," in Lee, Keun, Joonhan Kim, and Wing Thye Woo, eds., *Power and Sustainability of the Chinese State*, London: Routledge.
- Kipnis, Andrew  
 1997 *Producing Guanxi: Sentiments, Self, and Substructure in a North China Villag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Suzhi: A Keyword Approach," *The China Quarterly* 186: 295-313.  
 2007 "Neoliberalism Refined; Suzhi Discourse and Trope of Neoliberalis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3: 383-400.
- Low, Setha M. and Denise Lawrence-Zuniga eds.  
 2003 *The Anthropology of Space and Place: Locating Culture*, Oxford: Blackwell.
- Lu Xiaobo and Elizabeth J. Perry  
 1977 *Danwei: Th Changing Chinese Workplace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N.Y.: M.E. Sharpe.
- Marcus, George E. ed.  
 1993 *Perilous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gdal, Joe, A. Kohli, Vivienne Shue eds.  
 1994 *State Power and Social For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Choong Hwan  
 2008 *Delights in Farm Guest Houses: Nongjiale Tourism, Rural Development and the Regime of Leisure-Pleasure in Post-mao Chin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 Perry, Elizabeth J. and Mark Selden eds.  
2000, 2003 *Chinese Society: Change, Conflict, and Resistance*,  
London: Routledge Cuszon.
- Redfield, Robert  
1955 *The Little Commun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ott, James  
1990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hue, Vivienne  
1988 *The Reach of the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olinger, Dorothy  
1999 *Contesting Citizenship in Urba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atson, Ruby ed.  
1994 *Memory, History, and Opposition under State Socialism*, Santa  
F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 Xiang, Biao  
2005 *Transcending Boundaries: Zhejiangcun*, Leiden: Brill.
- Yan, Hairong  
2003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Neohumanism: Organizing  
Suzhi/Value Flow through Labour Recruitment Networks,”  
*Cultural Anthropology* 18(4): 493-507.
- Yan, Yunxiang  
1997 *The Flow of Gift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Yan, Yunxiang  
2003 *Private Life Under Social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Yang, Han-Sun  
2006 *Celebration of Wealth and Emulation of Modernity: The Politics*



*of Model Tourism in China's Richest Villag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Yang, Mayfair M.

1994 *Gifts, Favors, Banquet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Zhang Li

2001 *Strangers in the C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Zhang, Li

2002 "Spatiality and Urban Citizenship in Late Socialist China,"  
*Public Culture* 14(2).

〈Key concepts〉: culture-scape, urbanization, rural-urban continuum, blurred boundary, consumption, conspiracy, reproduction of relations

## Everyday Life World of Contemporary Chinese Peasants: Structure of Space and Expansion of Relations (*Guanxi*)

Kim, Kwang Ok\*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of de-collectivization and urbanization process in China, not only the urban sector but also rural area have drastically changed to practice modernity. In case of Dongying village in Shandong province, the communal enterprises were disbanded and peasants have come to secure non-agricultural jobs by way of contract with newly established factories and sub-factories in neighbouring small cities and townships. Having secured a favorable economic income in the local industrial structure, people of high educational background tend to base in the village and commute to neighbouring cities and towns. On the other hand, those who have moved to neighbouring cities, have kept their original peasant status (*nongmin hukou*) so as to maintain their access to the land as the village member. Manipulating this double-status, individualized peasants contest and compromise with the state in order to maximize their interest.

---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village is no longer a communal unit and the village government does not exercise its power and authority over the people, the village is becoming a place where people is simultaneously practicing the state-introduced modernity and their own tradition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o the improved transportation system, the genre of urban consumer life has penetrated into the peasant everyday world. As the life sphere of the peasants is expanding in the fields of schooling, life style, consumption, economic opportunities, and forms of residence, the rural-urban boundary is also becoming blurred. In the sphere of social relations, it can be observed that the peasants are reproducing their traditional resources such as kinship and marriage relations, alumni ties (*shaoyou guanxi*), relations based on home village or town (*tongxiang*) to cope with the radical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life. As a whole, the rural landscape has been restructured to produce a new culture-scape in which people's social memories contest with the public history of the state. This paper maintains, however, that what is practiced in everyday life world of the peasants in contemporary China needs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conspiracy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rather than as a form of resistance to or competition with the state power.

